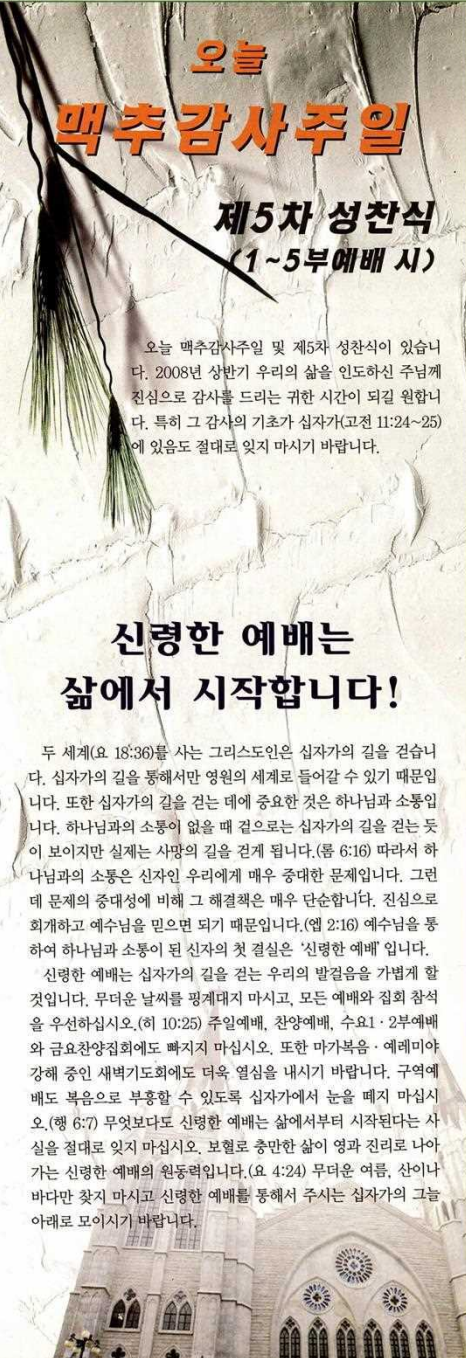




오늘

맥추감사주일

제5차 성찬식

(1~5부예배 시)

오늘 맥추감사주일 및 제5차 성찬식이 있습니다. 2008년 상반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특히 그 감사의 기초가 십자가(고전 11:24~25)에 있음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예배는

삶에서 시작합니다!

두 세계(요 18:36)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영원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걷는 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을 때 걸으려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롬 6:16) 따라서 하나님과의 소통은 신자인 우리에게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중대성에 비해 그 해결책은 매우 단순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되기 때문입니다.(엡 2:16)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이 된 신자의 첫 결실은 '신령한 예배'입니다.

신령한 예배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할 것입니다. 무릎을 낚아서 펴게대지 마시고, 모든 예배와 집회 참석을 우선하십시오.(히 10:25) 주일예배, 찬양예배, 수요일·2부예배와 금요찬양집회에도 빠지지 마십시오. 또한 마가복음·예레미야 강해 중인 새번기교회에도 더욱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구역예배도 복음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행 6:7) 무엇보다도 신령한 예배는 삶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보혈로 충만한 삶이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신령한 예배의 원동력입니다.(요 4:24) 무릎은 여름, 산이나 바다만 찾지 마시고 신령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삶(금요찬양집회)

1.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구별되는 것일까?
2. 바른 것과 향량함
3. 실질적인悔改
4. 오류에 대한 척각
5.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이다

6. 죄 용서함과 생명을 주심

60대 초반의 한 성도는 어린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 그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은 그가 죽은 후에 천국에서 영생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그의 삶은 의식의 안개로 덮여 있다. 이 의심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신이 범한 큰 죄를 용서하셨는지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와 비슷하지 않는가?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승리 안에서 안식을 찾고 누리기 전까지는 부활의 실존을 결코 체험할 수가 없다.(베후 1:3~4)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신자들은 그 후에 좀 더 나은 것, 훌륭한 기도를 찾기 시작하면서 종교적인 오류에 빠진다. 우리는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다. 따라서 참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보화를 남보다 발견하며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한다.(골 2:3, 1:26~27) 그런데 우리 중에는 주님과 관계 없이 열매가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베후 1:5~8)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해결되었음을 믿고 깨닫지 못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성장은 시작할 수가 없다.(베후 1:9)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은 우리 배를 통해 믿음을 으로 그리스도께 맡겨야 됨을 남보다 배우고 체험하는 과정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진리이다.(엡 1:7)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셨다.(고후 5:21; 골 2:13~14) 이 잃어버렸던 생명을 받았을 때에야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의 뜻과 목적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가 있다.(엡 2:1,5)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계속해서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는 깨끗해진 빈 그릇 안에 무엇인가를 채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에 관해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온전한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반쪽만 강조한, 즉 죄 용서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리시켜 놓는 것이다. 한 쪽만을 강조하므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삶을 체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 용서함의 목적조차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신 목적은 바로 깨끗해진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도 충만해져서 다시는 죄지 않을 새 생명을 늘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히 9:26) 성결하게 하시고 채우시고 부활하신다.(엡 1:13) 이것이 바른 복음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구원의 목적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어떻게 단번에 죄 사람을 주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롬 6:10; 베후 3:18) 그러나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100% 확실한 하나님의 용서는 계속해서 인간들의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생의 제사법을 주셨다. 비록 회생제물은 하나님께서 정제하여 주신 것이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게 된 사람은 없다. '속죄'는 '죄를 덮어 준다.'라는 의미이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었으니 제사는 완전한 대담을 주지 못한다.(히 10:1,10) 회생제물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었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끝을 맺어 주셨다.(히 10:4) 율법 아래에서 사는 동안 피할 수 없는 이 죄의식으로부터 풀려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역은 구약의 속죄제사와 대조적이다.(히 10:10~12) 예수님은 자신을 회생제물로 드리셨다. 이를 통하여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게 되었다. 왜 예수께서는 앉아 계실까?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이다.(요 19:30)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용서를 받았다.(히 10:14)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기를 원하신다.(갈 2:20) 신약에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말씀하신다.(히 8:10) 만일 구원이 마음의 변화가 없이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마도 구원을 죄를 범하게 허락하는 면허증으로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 때에는 그럴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용서한 삶'을 약속하셨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우리를 통하여 사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을 발견하며 체험하고 누리도록 자유할 수가 없다. 죄 용서함으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자. 아멘.

LET'S GO TO THE ALTAR

*We have an altar from which those who serve
the tabernacle have no right to eat.*

(Hebrews 13:10)

As God's children, today's Bible verse is one of the most wonderful affirmations of our faith. Let's examine this spiritual provision that God has made for us.

God has provided us an altar for personal devotion. When the Israelites wanted to meet with God in an act of devotion or dedication, they had to bring a specific kind of animal for the priests to burn on the altar. God required that the fire on this altar be kept burning continually. (Lev. 6:13) It had to be ready and available at all times. Through Jesus Christ, God has made for us a special altar. Jesus, "having offered one sacrifice for sins for all time,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God, waiting from that time onward until His enemies be made a footstool for His feet. For by one offering He has perfected for all time those who are sanctified." (Heb. 10:12~14) God's law for the Israelites required a physical altar that only their priests could come to. God's grace for the whole world requires a spiritual altar that only believers can come to. "Therefore, brethren, since we have confidence to enter the holy place by the blood of Jesus, by a new and living way which He inaugurated for us through the veil, that is, His flesh." (Heb. 10:19~20) At the moment when Jesus cried out on the cross, "It is finished!" (Jn. 19:30), ".....the veil of the temple was torn in two from top to bottom." (Mt. 27:51) No longer could only the high priests enter the holy place to go to the altar, but now everyone with faith in Jesus Christ could meet with God. God changed the altar from a physical place to a spiritual place. Now all believers have the opportunity to fellowship with God at any time and in any place. As Daniel knelt on his knees three times a day, praying and giving thanks before his God, so too can we. (Dan. 6:10) Whether you are lying in bed, cooking in the kitchen, or driving in your car you can meet with God. Wherever you read your Bible and pray you can have personal devotions with God. For between God and you stands Jesus, and Jesus has promised, "Whatever you ask in My name, that will I do, so that the Father may be glorified in the Son. If you ask Me anything in My name, I will do it." (Jn. 14:13~14)

God has provided us an altar for worship. Abraham worshipped God with all his heart. He gave everything to the Lord. When God asked him to sacrifice his son Isaac, he told his servants, "Stay here with the donkey, and I and the lad will go over there; and we will worship and return to you." (Gen. 22:5) Abraham was willing to sacrifice his own son, his most treasured possession, in obedience to God. When you worship, do you just sit down in church, sing a few hymns, read a few Bible verses, listen to a little preaching, and then go home thinking or telling others that you worshipped God today? Today's churches have lost the sense of the holy. God is not your pal or a friendly grandpa. He is the Almighty, Everlasting, and Creator God. Look at Abraham's attitude toward worship or picture God the Father and His Son at Calvary! True worship will quicken your conscious with the holiness of God. It will fill your mind with the

majesty of God, and it will open your heart to the love of God. It will direct your will to the purpose of God. It will make you sing. "How lovely are Your dwelling places, O Lord of hosts! My soul longed and even yearned for the courts of the Lord; my heart and my flesh sing for joy to the living God." (Ps. 84:1~2) and "For a day in Your courts is better than a thousand outside. I would rather stand at the threshold of the house of my God than dwell in the tents of wickedness." (Ps. 84:10)

God has provided us an altar for cleansing our sins. Jesus is our altar. He is our sacrifice. When we look at the Old Testament, we find a gold and bronze altar for intercession and sacrifice, "and the gold altar, and the anointing oil and the fragrant incense, and the veil for the doorway of the tent; the bronze altar and its bronze grating, its poles and all its utensils, the laver and its stand." (Ex. 39:38~39) The Israelites broke their covenant with God, and God removed their physical altar, "This is another thing you do; you cover the altar of the Lord with tears, with weeping and with groaning, because He no longer regards the offering or accepts it with favor from your hand." (Mal. 2:13) Jesus is now our intercessor and sacrifice. He washes away all our sins. His blood pays the price for our sins. His death gives us eternal life. Jesus told His persecutors, "While I was with you daily in the temple, you did not lay hands on Me; but this hour and the power of darkness are yours." (Lk. 22:53) The most awful crime and the most wicked act ever done on this earth was the crucifixion of Jesus Christ. At sundown, the soldier made sure that Jesus' crucifixion was complete by piercing His side with a spear, so that His water and blood flowed out. The Son of God had fallen, the earth quaked, and the darkness fell as God draped the sun. Hell celebrated the day, but not for long. Jesus went down and conquered death, and came back to make the drunkard sober, the harlot pure, the thief honest, and the wicked saintly. His victory made it possible for you and I to become a child of God. When we repent, Jesus cleanses our sins, and God forgives us. We must confess our sins before meeting with God, "Therefore if you are presenting your offering at the altar, and there remember that your brother has something against you, leave your offering there before the altar and go; first be reconciled to your brother, and then come and present your offering." (Mt. 5:23~24) Now we can yell, scream, and praise aloud that we have an altar!

The Bible gives us a last invitation, "The Spirit and the bride say, 'Come.' And let the one who hears say, 'Come.' And let the one who is thirsty come; let the one who wishes take the water of life without cost." (Rev. 22:17) When God first came, He came to create. When He came a second time, He came to save. When God created, He only had to speak. When God saved, He had to suffer. The first time God gave His breath to humans, the second time He gave His blood. I repeat the assurance of Hebrews 13:10. "We have an altar"! 🙌

그 제단으로 나아가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히브리서 13:10)



김성완 목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오늘의 성경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주는 가장 확실한 말씀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영적 은혜들을 예비해 두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단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제단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헌신의 행위로 제단에 반제로 바칠 특정한 동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피워 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레 6:13) 제단의 불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특별한 제단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들음이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히 10:12~14)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에는 오직 제사장들만이 제단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영적 제단 앞에는 오직 신자들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갈떡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히 10:19~20)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요 19:30)라고 외치셨을 때 “……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 되었습니다.(마 27:51) 이제 더 이상 성소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제단을 보이지 않는 영적 제단으로 바꾸셨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세 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기도를 드렸듯이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단 6:10) 침대에 누웠을 때나 부엌에서 요리할 때, 혹은 운전 중이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부르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내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시게 내가 할 것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요 14:13~14)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제단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창 22:5)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독자 이삭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단지 예배당에 앉아서 찬송가 몇 곡 부르고, 성경 몇 절 읽고, 설교를 몇 분 듣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은 거룩함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친구나 인자하신 조부모가 아닙니다. 그분은 존경하시고 영존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십시오. 갈보리에서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그려 보십시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분명히 의식할 수 있게 만듭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엄위하심에 압도당하게 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지게 되고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니요 내 영혼이 여호와와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여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시 84:1~2)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나”(시 84:10)

죄를 씻는 제단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제단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제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생제물이십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중제와 희생제물에 쓰는 금 제단과 놋 제단이 나옵니다. “금 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온 향과 장막 휘장 문과 놋 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표”(출 39:38~39)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제단을 없애셨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놋물과 음윤과 탄식으로 여호와와 제단을 가리게 하신다 그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말 2:13)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의 중제자요 희생제물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이제는 너희 때로 어둠의 권세로다”(눅 22:53) 이 땅에서 행해진 가장 끔찍하고 사악한 범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었습니다. 해가 지자 한 군병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고, 그 순간 주님의 몸속에 있던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숨을 거두셨을 때 땅이 흔들렸고 하나님께서 해를 가리심으로 온 땅이 어두워졌고 지옥은 승리의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셨고, 술 주정꾼을 온전하게 하고 창녀를 순결하게 하며 도둑을 정직하게 하고 사악한 자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저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마 5:23~24) 이제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고 큰 소리로 외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심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데도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계 22:17) 하나님의 첫 번째 오심은 창조자 목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오심은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창조자일 때 하나님은 오직 말씀만 하시던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을 때 하나님은 몸소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의 생기를 주셨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피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3:10 말씀이 주시는 확신을 되새겨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습니다!”

2008년 제2차 청지기훈련을 통한 은혜

두 세계 (요한복음 18:36)

할 수 없는 이 죄인이 었드려 회개하오나

11년 동안 자기부인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고 나 또한 항상 자기부인한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은 죽어야 할 때 죽지 못하고 살아 있음을 느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할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밀바라에 있는 나에게 사다리를 내려주시 주님께 기뻐 감사드렸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허름한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이 크리스마스일 뿐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더 추한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오신 것이 크리스마스"라는 위임목사님의 말씀에 이 추악하고 더러운 내 마음에 오신 주님의 사랑에 오직 감사와 기쁨에 목이 메었다. 항상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주위의 시선과 환경과 여건에 온전히 결박당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또한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매년 시인한다.

하지만 이러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선다면 하늘에서는 잔치 열릴 것이라는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순간을 체험하였다.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이고, 모든 죄악의 죄사함을 받고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니 이것을 또한 고백하는 시간이었다. 연초에 말씀하신 "두세워지길 달라 나는 네 뱀파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창 15:1)는 말씀을 기억하며 두려움 없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복음에 빛진 자로서 주님을 힘있게 전하는 청지기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죄악의 사슬 끊게네, 내 맘에 평화 넘치네, 내 맘의 기쁜 노래가 영원히 울려 퍼지네!"

강성영(집사, 2교구)

둘아 갈 곳은 주님의 나라

이번 청지기훈련을 향한 발걸음은 다른 때와 달리 특별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아닌 두려움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는 항상 교회에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한 주를 보내는 저의 모습은 말씀을 읽지도 찬송하지도 않는 모습이었으며 심지어 기도하는 모습도 없었기에 제 속에서 주님이 아닌 저의 악함이 드러나는 것 같아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이제 저 그 악함을 가리는 것으로 급급하고 점점 지쳐갔습니다. 저의 모습은 정말 100%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세상에서 감동을 얻고, 세상에서 희망을 얻는 동안 주님께서 저를 떠나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가 주님을 떠났지 주님은 언제나 저와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결국 이번 청지기훈련을 통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주님은 두 세계 가운데 있는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인들을 받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를 받아 주시고 주님의 세계로 인도해 주심을 체험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고전 15:57~58) 이제 다시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을 펼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제가 돌아갈 곳은 주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주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패락을 찾던 저를 붙여 오면까지 왔고 이제 다시 일거위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된 그날 밤, 저 천국에서 천사들의 노래가 울려 퍼지며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회개로 인한 기쁨이 넘쳤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나라로 돌아오는 죄인을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저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박서정(고등부)

감사할 것 밖에는 없어!

나의 함께 청지기훈련에 참여했던 한 후배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미칠 수 있어?"라는 물음에 하나님을 믿는 나의 열정이 그렇게 비추어 졌다니 놀라기도 했지만 정말 기뻐했다. 가계 문도 일찍 닫고 교회를 향하는 내 모습이 그렇게 보였나 보다. 조금이나마 주님을 믿는 빛이 된 것 같아 너무나 감사했다. "감사할 것밖에는 없어!"라는 어느 집사님의 말씀대로 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오만과 자만심에 가득했던 저 많은 나를 다 용서해 주신 주님만 의지할 뿐이다.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나의 아들, 딸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와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가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욥 23:10)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 나의 가족들,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 빛이 되고 중된 삶에 살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이원선(성도, 14교구)

하늘에 속한 영광을 바라보며

돈 버는 것, 성공하는 것,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등..... 이런 것들이 항상 나를 자극하고 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늘 땅에 속해 이러한 것에 몰입하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나였다. 왜냐하면 늘 보고 듣고 늘 감각하는 것들이 이 땅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이고 하늘에 속한 것은 아직은 나와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청지기훈련을 통해 주신 주님의 말씀은 나태하고 교만하며 어두워진 내 영혼을 깨우기에 충분하였다. 주님은 다시 한번 나에게 눈을 들어 두 세계가 있음을 보게 하시고 진정한 소망을 하늘에 속한 것임을 깨닫게 해 주셨다. 나는 과연 천국과 단절된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영광도 있다고 했다. 그런데 땅의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될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무시한 채 나는 이 땅의 썩어질 영광만을 위해 살았던 것이다. 어떻게 이 하늘에 속한 영광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 떠올랐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지체로 부르시는 한 하늘과 연결된 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럽기 짝이 없고 연약하기 그지 없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시기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좋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에 매여 살던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말이다.

두 세계! 지금까지 이 땅의 슬픔과 아픔과 근심을 극복하기 위해 이 땅의 영광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며 세상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던 나였다. 그러나 이제는 잠시 후에 그 가치를 상실할 이 세상의 재물이야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곳, 그곳에 이를 그때까지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 천국을 전하며 살아가는 다짐해 본다.

이원보(청년1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니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며 지내온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있으나 진정한 회개가 없었던 지난 날 나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살아야말로 진정한 삶이라는 뜻이 사회생활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왔던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죄인이 회개할 때 더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더욱더 회개하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의 영혼이 소생한다는 말씀 속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것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으며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니 주님 날 부를 그때까지 주님만 바라보라는 찬양 속에서 새로운 소망과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내 삶의 최종 목적이었던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세주인 성도와 사랑하는 십이 만나 베풀며 주와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찬 의지하며, "두 세계" 중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값 주고 허락하신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김영희(집사, 20교구)

아름다운 나라의 비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린 두 세계를 바라보게 된 청지기훈련이었다. 이 시간은 때때로 유한한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 내게 재림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눅 15:10)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할 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고, 십자가로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상과 하늘의 다리는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피를 흘리신 십자가의 영광이 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부터 이 땅의 한한 곳까지 뻗어 오라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회개한 죄인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때 천사들이 아름다운 것들을 믿으며, 이번엔 나아가는 천국에서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힘 있게 외치리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정호(집사, 16교구)

*제3차 학습 및 세례식(2008.6.22.)



유아세례자

(부모의 고백)

나의 생명이시고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 아직 작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아들 성훈이와 함께 말씀과 기도생활을 열심히 해서 성령충만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김성훈(심혜진)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딸 시온이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영육이 강건해지도록 양육되기를 기도합니다. 양시온(한은주)

하나님께서 주신 딸 혜진이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며 부모로서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주님 보시기에 미쁘신 가정의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혜진(이승숙)

나의 삶의 전부이신 예수님, 연후로 하여금 믿음이 다시 싹트게 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맡겨 주신 자녀가 예수님을 믿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양육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김연후(황미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충실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부모가 되며 세상 가운데 자녀가 처하게 될 여러 어려움들을 대하게 이겨내갈 수 있도록 곁에서 항상 기도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성지훈(성종현)

예수님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내게 귀한 영혼을 맡겨주셨으니 주님이 주신 지혜와 사랑과 기도로 양육하겠습니다. 권세희(김연정)

세상으로 향하는 나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를 또한 나의 주님과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박지민(박정진)

길ियो 진리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주님이 맡겨 주신 자녀를 참된 신앙, 오직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겠습니다. 다미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김다미(김성하)

오직 주님의 자녀로 걸어 갈 것이며 우리 자녀들도 항상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장시온(고진희)

예수님은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십니다. 삶 가운데 언제나 믿음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승우(오영민)

나의 아버지이시며 생명을 주신 구세주 예수님, 저희 가정에 축복의 선물 선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생명을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믿아가는 자로 양육하겠습니다. 안현우(배은혜)

우리들의 자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늘 성령님이 함께 하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정나빈(정순규)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을 믿을 기약하며 예4년의 십자가 복을 안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겠습니다. 윤진현(유은희)

예수님은 새 생명을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찬양을 힘써 가르치겠습니다. 최사우(최종훈)

한을이를 말씀으로 교훈하고 많이 사랑하며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주님이 맡겨 주신 한을이를 지혜롭게 키우며 모범이 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김현돌(김 옥)

십자가의 길

맥추감사절(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기를 “맥추절을 지키라”(출 23:16)고 하셨다. 명령은 빛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 말하는 지휘계통이다. 그러므로 명령은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 명령이 비록 ‘내게 무당하고 또 이치와 사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어도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일부 새로운 신학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이나 급진주의자들과 대도시의 교회에서는 맥추감사절의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것은 말씀을 본래적 의미로만 재해석하려는 데서 오는 심각한 오류이다.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에 무엇인가 더하거나 빼어서는 안 된다.(마 5:18)

맥추감사절을 맞는 우리의 심령에는 당연히 감사로 충만해야 한다. 무언가 우리의 삶이 풍족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다. 만사형통함으로 인한 감사가 아닌,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가 드리는 유일한 감사여야 한다. 특히 우리가 드리는 맥추감사절은 오순절 즉 성령강림절과 깊은 관련이 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땅 끝을 향한 복음선도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우리는 지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신자들끼리만 노력는 맥추감사절에서 벗어나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온 땅이 복음화되는 그 삶을 소망하자. 아니 소망만 하지 말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총력 교회추진 전도에 참여하자. 또한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기도회(참월리월, 16:00)에 참석하거나 ‘가는 선교사’로서 실제 단기선교에 동참하자. 지금도 늦지 않았다!

(편집국)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7월 7일(월)~7월 15일(월)	11교구 1지역	이영호
7월 9일(수)~7월 16일(수)	2교구 6지역	한현식
7월 10일(목)~7월 18일(목)	23교구 1지역	박규연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7월 1일(화)~7월 8일(화)	11교구 4지역	조영철
7월 1일(화)~7월 8일(화)	16교구 5지역	양승찬
7월 3일(목)~7월 11일(목)	14교구 1지역	이희우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5개 팀)

기 간	팀	팀 장
6월 23일(월)~7월 1일(월)	9교구 1지역	박순근
6월 24일(화)~7월 2일(수)	14교구 6지역	류기명
6월 26일(목)~7월 4일(목)	6교구 2지역	장영욱
6월 26일(목)~7월 4일(목)	24교구 7지역	박민호
6월 27일(금)~7월 4일(금)	17교구 6지역	이정호

신임 교역자

복음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일꾼(살전 3:2)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원임 전도사
(1957. 3. 23.)
1남 1녀



김창성 목사
(1973. 3. 14.)
이현주 사모 외
2녀



이재현 목사
(1972. 11. 2.)
서선정 사모 외
1남 2녀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454	이재현	1	교역자		1467	김정진	18	소년부	강민석(18)
1455	사정인	1	청년2부		1468	최용준	22	대학부	최은희(22)
1456	이한솔	1	유치부		1469	한성기	23	청년2부	최은희(22)
1457	김영은	12	고동부	정구원(7)	1470	권오준	17	장년1부	강길예(15)
1458	배미을	6	고동부	정구원(7)	1471	양병민	11	소망부	김 학(11)
1459	박홍수	6	청년1부		1472	조윤주	2	소년부	지형경(2)
1460	성현희	15	장년1부	이형근(14)	1473	남순복	17	장년2부	김현희(2)
1461	김영민	17	청년1부	김재원(17)	1474	한민	25	외선부	김정숙(7)
1462	조병웅	2	청년1부	이근덕(2)	1475	최복국	9	장년부	박영순(9)
1463	안재순	9	장년1부	유주옥(9)	1476	김재은	20	소년부	전옥순(20)
1464	장나나	9	유년부	유주옥(9)	1477	정순호	11	대학부	남주성(11)
1465	박부자	15	장년3부	오명자(15)	1478	곽광미	20	대학부	김일준(15)
1466	백종우	19	대학부	정달영(22)					

종교개혁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분은 본당 203호 등록록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